

Story 04

김 * * 행정학과 2021년 졸

기업은행 금융영업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기업은행
- ▶ **직무** 금융영업
- ▶ **스펙** 학점: 3.77
토익: 875점
- ▶ **공모전** 경상북도 독도토론대회 장려상
국회의장배토론대회 사무총장상
한국투자증권 대학생모의투자대회 단체부문 장려상
참모총장배 육군창업대회 최우수상
- ▶ **봉사활동** 외국인 멘토링(언어교육원 이끄미)
- ▶ **기타** 행정고시 준비, 카투사, 다수의 기초교육원 소모임
- ▶ **자격증** CDCS(국제신용장전문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대학생활 스토리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F를 받았던 수업도 있었던 만큼 딱히 모범적으로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다만 행정학과 자체를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들어왔기에 1학년을 마칠 무렵부터 전남대학교에서 행정고시 공부를 지원해주는 '프라임홀'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2년 정도는 휴학도 일부 하면서 행정고시(재경직)를 준비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카투사에 지원했던 게 되어버려서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를 다시 할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뭔가 행시에 합격할 정도로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너무 싫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진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으면서도 행정고시 보다는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던 중에 제가 경제학, 돈과 관련된 일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잡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반기에는 서류에 합격하여 필기시험을 봐보면서 경험을 쌓고 CDCS 등의 자격증 등을 취득할 계획이었는데 운 좋게 이번에 상반기 공채에서 IBK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상황이 잘 따라줘서 합격할 수 있었다 생각하지만, 그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토론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이번 공채 과정에서 크게 도움 되었던 거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우연한 계기로 과 선배로부터 토론 소모임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었고 그 활동을 계기로 **전남대학교 토론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토론과 관련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여러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냥 수상경력으로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나 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기에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직 저학년이라면 문과 계열에서 최고의 취업 스펙은 토론이라고 생각하기에 거창하게 대회는 아니더라도 토론을 해보는 경험을 많이 가졌으면 하고 후에 취업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IBK기업은행)

3. 자기소개서(IBK 기업은행 행원)

☞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1. 토론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토론대회는 기본적으로 팀을 이뤄 진행되었기에, 다른 팀원과 지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합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많이 얘기해야 하는 만큼, 의견 대립이 생길 가능성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의견 충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팀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번의 대회와 토론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과 협업하

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 경제와 법률을 공부하면서 직무 관련 지식을 배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보험경제학', '정치경제학', '회계원리' 등을 수강하였습니다. '보험경제학'을 통해 여러 금융 상품과 위험 분석방법, 그리고 보험 원리를 배울 수 있었고, '정치경제학'을 통해 다양한 국제 금융 이슈들을 함께 토의하며, 금융 트렌드를 배웠습니다. 또한, 회계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계원리'를 수강하였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와 여러 회계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법총칙', '행정구제법' 등을 수강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금융 지식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능력을 습득하였고,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청자(고객) 맞춤형 소통능력을 배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을 담당하였는데, 그 친구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 등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상호 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소통과정에서 알게 된 친구들의 취향을 바탕으로, 한국의 옛날 성이나 친구들의 나라에서는 쉽게 먹기 힘들었던 해산물들을 함께 먹어보면서, 저 역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을 접해볼 수 있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나, 속도를 조절하여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자기소개서(학교명 입력 불가)

*** 본인의 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그 장단점을 활용해 팀 또는 조직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저는 토론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열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찬, 반 모두의 관점에서 논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깨부수고 보완하고 하는 과정이 수반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논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기에, 논리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이기에, 많은 생각을 들어보고 배울 기회가 되었고, 제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저는 제 생각에만 갇히지 않고, 저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중요시하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을 이끌어가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 거 같아 이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개최한 대학생 모의투자대회에서 장·단점을 활용하여 2명의 팀원과 함께 단체부문에서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식투자를 해보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함께 대회 규정(종목 제한)과 요건(매매횟수, 회

전금액 등)을 분석하면서 투자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대회의 규정이 까다롭다는 것을 발견해냈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은 제가 중심적으로 맡아 진행하여 입상자격을 무사히 획득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대회가 끝나기 1주일 전에 두 팀원이 잘해주어, 단체 부문 2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등과 수익률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상태였기에, 저희는 의견을 다시 모았고, 결과적으로 조금 위험이 있는 결정을 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결정이 되어, 좋은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충돌 없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의견을 모아 결정하여 만들어진 결과이기에 저희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모으는 과정 그 자체도,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실패란 “결과와 상관없이 목표 달성 과정에서 얻는 것이 없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얻는 지식, 생각, 깨달음, 배움 등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농업창업’이라는 낯선 주제로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 고가의 한국 희귀 난’과 관련한 3단계의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사기, 배송 문제 등)을 해결하는 여러 시스템을 실현해보고 싶었습니다. 해당 사업아이템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고, 새로운 도전이었기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찾아보고, 관련 종사자 분들도 직접 만나보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지만, 해당 대회에서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였으나, 아무것도 제게 남지 않은 거 같아,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도전이 의미도 없는 실패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의미 없고 실패했다고 생각한 이 경험이 후에 다시 육군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농업창업대회를 준비하면서 얻게 된 여러 노하우들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크게 도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함께 만든 창업 아이디어는 ‘딤러닝과 시를 바탕으로 한 종합 저작권감시시스템’으로 기존에 했던 대회와 주제가 매우 달랐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연구했었던 경험이 이러한 주제를 보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료들과 협업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좋은 결과를 만드는 연습을, 그 전의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 당시에는 실패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경험도 후에 상황에 따라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더욱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IBK기업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선택한 지원분야에 자신이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과거 토론 소모임을 운영하다 “한국경제 성장이 둔화되는걸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과거에 대기업 주도의 성장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을 키워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당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자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역량은 수많은 **토론 경험과 창업경진대회 등을 겪으면서 얻게 된 소통, 이해, 분석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고객(기업)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 역시, 그동안의 경험에서 수없이 해보았기에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더욱이, 카투사 복무 당시에 민원업무를 맡았던 경험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고객 상담’, ‘고객 제안·협상 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과거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며, 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또한, 카투사 복무 시에 육군 규정과 여러 군사 법규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징계업무 등을 맡아 적용하고 법규를 해석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래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고, 여러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할 자신이 있기에, ‘거래. 약정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직무’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출입업무를 도와 그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능력이 당장에는 부족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CDCS를 취득하고, 기업은행에 들어가서 지속해서 능력을 개발하여 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 본인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타인, 공동체 또는 사회의 공익에 기여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을 작성하십시오.**

“현재의 내 위치에서 공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에 카투사와 미군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군 생활이 끝날 때까지 10여 명의 민원인이 같은 이유로 민원을 넣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6.25,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거나 미군과 근무하셨던 분들이 후에 국가로부터 보훈을 받기 위해서, 미군과 관련되어 복무하였다는 기록을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카투사들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부대였고, 이와 관련된 담당과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민원을 맡지 않고 이첩시켰어도 됐지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 민원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이 일을 함께 담당했던 상사분과 함께 직접 미군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기록물을 담당하는 미군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미국에 NPRC라는 인적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관에 해당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등 해결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고, 영어가 서툰 민원인들을 대신하여 신청 형식에 맞게 민원인들의 자료를 번역하여 미군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국제우편으로 NPRC에 신청해드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군데 모두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와 원하는 결과를 민원인분들께 안겨드리지는 못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해당 소관이 아니라고 거부만 한 것과 달리 이러한 노력을 다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씀해주신 민원인분들도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 외에도 징계와 법규에 대한 업무도 맡으면서 습득한 규정과 지식을 바탕으로, 함께 일하시는 간부님들이나 동료들이 이와 관련되어 어려워할 때, 먼저 나서서 찾아드리고 도와드리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러한 민원업무를 통해 다양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나갔던 경험과 육군 규정 등 다양한 법률을 접하며, 이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업무를 맡으며 얻게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간이자기소개서 (임원면접용)

장점: 협력(소통)능력, 추진력, 책임감

단점: 빠른 결정 어려움

취미: 요리, 주짓수

특기: 투자, 도전

존경하는 인물: 영화 '인턴'의 주인공

직무: 카투사 민원처리 및 징계(법규)업무

경험: 1. 육군참모총장배 창업경진대회 'SI 기반 저작권 침해 감시 서비스', 최우수상

2. 한국투자증권 모의투자대회 단체부문, 장려상

3.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국회사무총장상

자기소개: 그동안 저는 요리, 투자, 농업, 창업, 주짓수, 카투사, 영상, 토론, 멘토링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적응력과 협동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기업은행에 최적의 인물이 될 것을 자신합니다.

입행 후 포부: 한국의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으므로,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 지원의 필요성이 중요

합니다. (재도약 금융) 특히,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의 2%만 수출입, 대구는 5%) 이에, 저는 현재 외환전문역과 CDCS를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능력을 더욱 키워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입사지원경험 (IBK기업은행 금융영업)

가. 서류, 필기전형 후기

(1) 서류전형: 자소서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업분석이라고 생각해서 **기업은행 홈페이지와 연구소, 기사 등을 찾아보면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나 인재상에 부합하는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업은행 공채의 경우에 서류는 합격을 많이 시켜 평균적으로 서류전형 경쟁률이 2:1이 안되므로 어느 정도 수준의 자기소개서만 쓸 수 있다면 서류전형은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 필기전형: 제가 응시했을 때 필기 경쟁률은 대략 8:1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든 전형을 다 포함해서 가장 치열한 전형이 필기라고 생각되며, 제가 응시했을 때 NCS, 경제, 회계, 재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고 특히 회계와 재무 영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럿 보였고 10문제의 주관식도 있었습니다. 시험 출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문제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고 보통 60~70점대에서 합격 컷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행정고시를 했기에 경제학과 NCS(NCS보다 난이도가 더 있는 행시 1차(PSAT)를 공부했었으므로) 공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지만, 그 외의 회계, 재무지식은 거의 없었음에도 합격했으니까 말이지요. 즉, 결론은 모든 영역을 다 잘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오히려 그 시간을 아껴 필기전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CDCS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로 시험이 미뤄져 합격결과가 최종합격하고 나와서 가산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면접 단계에서 이를 준비했고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 됐으니 우대 자격증을 우선하여 노력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제를 받았을 때 시간 안에 NCS까지 전부 푸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NCS 문제를 가장 나중에 풀었는데 그 풀이 전략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면접후기

(1) 1차 면접: 기존의 IBK기업은행 1차 면접은 1박 2일로 합숙하며 진행됐었고 팀 발표, 팀 프로젝트, 면접관들에게 물건 팔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 상반기 공채 때는 코로나의 여파 때문인지 연수원에서 **당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4가지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는데 **1. 심화 문제 풀이 2. 자유토론 3. 릴레이 즉석발표 4.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기 시간에 최종면접 때 쓰일 간이자기소개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1차 면접 중에 핸드폰 사용이 불가하므로 이를 작성하는데 도움 될 만한 자료들을 종이에 인쇄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고, **간이자기소개서 내용을 잘 적어오는 게 최종면접 대비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심화 문제 풀이 같은 경우 서술형? (주관식) 스타일로 회계와 경제학 문제 중에 한 개 이상을 골라 푸는 것이었는데 난이도는 필기전형보다는 높았지만, 이 역시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는 제가 풀었을 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회계의 경우도 제가 회계를 잘 몰라 풀지 않았었는데 푼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화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는지는 면접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 풀이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후에 있을 1:1 면접이나 2차(최종) 면접 모두에서 심화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모두 의아해하긴 했습니다.

나) 자유토론의 경우 4인 1팀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졌고, 토론 주제선정, 팀을 나누고 토론하는 전 과정을 면접관 개입 없이 저희 스스로 자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20분 정도)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노키존 찬반**으로 주제를 정하여 토론하였는데,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달하고 토론을 잘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의견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잘하지 못했지만 좋은 태도 때문에 자신이 붙었던 거 같다는 동기도 존재했으므로)

다) 릴레이 즉석발표는 키워드('멀티 페르소나') 하나를 제시해주고 생각할 시간을 잠깐 준 다음에 즉석에서 발표 순서를 정해서 즉흥발표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면접방식으로 처음에 조금 당황했었는데 우선 처음에 생각할 시간에 내가 몇 번째 순서로 발표를 하게 될지 모르니 우선은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문장을 개별적으로 만들어놓고 내가 걸리는 차례에 맞게(그 전 발표내용을 고려해서) 그중에서 선택해서 발표하자는 전략을 세워 진행하였습니다. 운 좋게도 첫 번째 순서가 걸려서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멀티 페르소나 단어의 의미의 실질적인 예시, 현대 사회에서 이 개념이 중요해진 이유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당된 발표시간이 좀 남아서 더 많은 얘기를 할까 고민하였지만 뭔가 팀에서 순서를 정해 발표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말해버리면 뒷사람이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남았지만 마무리했는데 이게 어쩌면 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행이 인성, 배려를 중요시한다고 들었으므로)

라) 마지막은 면접관님과 15분 정도 1:1 면접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접관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소서를 읽으면서 질문을 하셨고 특이한 점은 4명의 다른 면접관들이 교대로 한 명씩 일정 시간 들어와서 함께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질문들은 자기소개서 기반이라 지원자에 따라 달랐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론 경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토론, 소통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질문해주신 면접관분이 성격이 정말 좋으셔서 편한 분위기에서 대답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여쭙바 주셨을 때 저는 기업

은행의 코로나 대출? 광고에서 나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행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기업은행과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으로 마무리 발언을 했던 거 같습니다.

(2) 2차 면접(임원면접)

코로나 때문인지 시간대랑 일자를 나눠 진행되었고 본사에서 **1시간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은 기업은행 임원 2명, 외부인사 2명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 복장은 남자 기준 넥타이 없이 정장면접이었고 머리 손질에 자신이 없어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받고 갔는데 **대부분이 드라이를 받고 온 거 같아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시까지 대기실에 오라 했는데 면접은 3시에 진행되었고 그 대기 시간에 부모님 연락처(합격통지를 이때 입력한 부모님 연락처로 함)와 주소(합격하면 꽃바구니 보내줌)를 적고 면접 입장, 인사 방식 등을 간단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원래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해오라 했었는데 갑자기 **원래 자기소개를 30초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30초를 지금 소감과 관련하여 말하라고 기습미션**을 주기도 했습니다. 면접은 5인이 팀을 이뤄 순서대로 자기소개랑 소감을 말하고 다시 순서대로 7분 정도씩 질문을 받았습니다. 4분의 면접관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고, 한 분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꼬리물기 질문 등이 들어와 압박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은 간이자기소개서 위주로 나왔으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원래 자기소개서에서 경력 사항 등은 읽어보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투자, 토론, 변화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최종면접에서 합격하려면 **저만의 캐릭터를 확실히 만들어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해온 것을 바탕으로 기업은행이 현재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저라는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그러한 캐릭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답을 했던 거 같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Tip

서류부터 최종면접까지 준비하면서 전남대학교 일자리센터 컨설턴트분들께 여러 번 상담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OO님께) 그렇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상담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